

광주 북구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법 따른 실무 준비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출범 내년 1월까지 활동...인사 자율성 등 대안 수립

광주 북구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실무 준비에 나섰다.

광주 북구의회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3일까지 활동하는 개선준비단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위상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의회에 제안한다.

개선준비단은 크게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제정·시행령 개선 요구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준비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법규 제·개정 ▲대외협력 등 5개 분야로 나눠 활동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춘 후속 입법과 시행령에 대한 기초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개선준비단은 의회사무국 체계를 되짚어보고 조직 개편을 준비한다.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등 조직 인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세운다. 또 자율적인 의회 조직 및 예산 편성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기 앞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추가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청사 사무



광주 북구의회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 분야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준비한다.

후속 조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에 대비해 행정·법률적 사항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공포에 앞서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 광주시·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사전 협의에도 적극 응한다. 또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쓴다.

개선준비단에는 이정철 북구위원을 단장으로, 임종국·김형수·고정례·주순일·신승연 의원이 참여한다.

자문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전광섭 호남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개선준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활동한다.

한편,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결직 신고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윤희기자

이용섭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최근 3년 0.48%→0.47%→0.3%

광주시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비율이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인 것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우선 구매를 독려하며 “구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 여성, 자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또한 더욱 열악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약자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체에 비해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나눔과 연대의 도시 광주답게 이들 기업이 제대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부분의 구매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할 때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장애인·여성 등 분야별 총괄부서에서는 연간 구매 목표와 계획에 따라 우선구매율이 범법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매 실적이 저조한 중증장애인 생상품 구매를 늘려달라”며 “우선구매 컨설팅과 제품 설명회 등을 통한 구매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증장애인 생상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광주시는 2018년 0.48%, 2019년 0.47%로 절반에 못 미치는 구매율을 보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3%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윤희기자

동구, 전일문화센터서 ‘광주노래전사회’ 개최

광주 동구는 전일245빌딩 4층 전일생활문화센터에서 광주의 노래를 통해 ‘광주’가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재조명해보는 ‘광주노래전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노래전사회’는 광주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동구행복재단(대표 김병규) 주관으로 지난 8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정미용 동구의회의장, 최경천 전일방송 전 아나운서 등 지역 주요인사를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구, 내방어린이공원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착수

광주 서구가 화정1동에 위치한 내방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부터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은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공원을 재조성함으로써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지난해 12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화정1동 주민협의회에서는 공원의 개발 테마를 선정하고, 공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6회 개최, 내방어린이공원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남구 “기술 배워서 바늘구멍 취업 뚫는다”

광주 남구는 신중년 및 중장년의 인생 2막 출발을 위해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자동차 검사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과 경력을 갖춘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송원대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신중년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4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송원대에서 4개월간 자동차 검사 관련 기술을 습득한 뒤 송원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 검사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광주 북구는 지역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면서 일상 속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구는 28개소 내외를 선정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실비 등 사업비를 1곳당 2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북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마을공동체형·거점형·특성화형·일반형 4가지 분야에 응모할 수 있다.

광산구, 우리밀 저장시설 개선 공모 선정

광주 광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광산구는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산구 동곡동 한국우리밀농협 저장고(4000t 규모)에 저온 보관 기능을 추가하고, 노후 건조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현 저장고는 단순 저장만 할 수 있어 온도·습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광산구는 이 사업으로 안정적인 비축이 가능해 우리밀 생산량과 유통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형택기자

전남도, 남북 협력 교두보 ‘호남권 통일센터’ 건립 착수

상반기 부지 매입·9월 착공 국비 31억5000만원 총 80억 옛 목포경찰 부지 내년 준공 한반도 평화·남북관계 발전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강화해 남북 교류협력, 통일교육, 남북민 지원, 평화통일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통일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한다.

국비 3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옛 목포경찰서 부지인 목포 용해동에 연면적 2000㎡ 규모로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도·시·군,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 협의체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설립하고, 중장기적 남북교

류협력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대북의약품 지원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왔다.

앞으로 센터 준공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점식 전남도 차지행정국장장은 “전남의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얼어붙은 한반도에 온기를 되살릴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호남권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99.50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1.12
3.사업운영기간 : 2021.12~2046.12(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1.03.05.~2021.03.15.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 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시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ilyang00@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발전소명	6.신청인	7.용량(kW)	8.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리8호 태양광발전소	성영자	99.50	전남 나주시 봉황면 신원리 615-2 1,346㎡/143.67㎡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 단 704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박윤식 (740602-1573911)
최 후 주 소 : 여수시 미평11길 5-7, 302호(미평동)

위 망 박윤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3월 10일

공 고 인 : 김남래,박 박희수의소송수계인 박미화, 박미선, 박종식.
주 소 : 여수시 소미1길 40-1(문수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1년 2월 25일
공 고 기 간 : 2021. 3. 10 ~ 2021. 5. 10